

입문수기



첫회, 해방 후 신학문에 매료된 나는 여성운동을 하며 살고 싶었다

기독교 교리와 기독교인의 삶에 대해서 많은 모순과 부조리를 느끼게되자 신앙에 회의가 들었다

나는 평안북도 선천에서 기독교 집안의 3남 3녀 중 장녀로 1927년에 태어났다. 아버지는 그곳에 교회를 세운 장로였으며 집안은 꽤 잘 살았다. 나중에 위로 오빠 둘이 기독교 목사가 되었으니 부모님의 기독교 신앙이 자식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쳤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나도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통하여 집안 성경 말씀과 그분들의 신앙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많이 생각하고 느끼게 되었다. 성경에는 선, 사랑, 화평, 용서, 믿음 등 인간이 지니고 살아야 할 마음가짐과 행위에 대하여 어느 정도 정의하고 표현해 놓았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윤리나 도리(道理) 같은 계명과 율법에 입각한 삶에 익숙해졌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게 되었다.

신학문에 든 여학생

당시 우리 집은 유복하여 남에게 아쉬울 것이 없었다. 할아버지 아버지 모두 공부를 많이 한 학식이 있는 분이었고, 기독교를 일찍 받아들여 신학문에 눈을 뜬 개화사상을 가지고 계셨다. 나는 어려서부터 성격이 당차서 아무리 여자로 태어났지만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고서는 못 배웠고, 또한 겁도 없었다.

18살이 되는 1945년 해방이 되자 온 나라가 좌우로 갈라서 시끄러웠고, 내가 사는 선천에도 빨갱이 사상 추종자들이 여기 저기 난무하여 사회적으로

상당히 혼란스럽고 불안이 커져가던 시기였다. 이북은 특히나 과격한 공산주의자들이 활개를 치고 다녔기에 우리 집안같이 기독교 가정은 언제 어떻게 잘못 될지 모르는 형국이었다. 공산주의자들이 관을 치니 다니던 학교생활도 여의치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 집안이다 보니 늘 불안과 위협을 느끼며 살게 되었다.

고향에서 기독교 신앙을 하면서 살아가는 언제 빨갱이들에게 위협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부모님은 가족들을 데리고 남쪽으로 내려가기로 하였다. 오빠들은 학업을 위해 먼저 서울에 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은 모두 황해도 해주에서 밤 2시에 비마저 내리는 컵검 한 밤에 배를 타고 뚝을 같이 하는 많은 무리와 함께 모처로 내려왔다. 그때는 3·8선이 생기기 전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빨갱이들을 피해 남한에 내려왔다.

우리 가족도 오빠들을 믿고 서울에 오기 시작했지만 거처가 마땅치 않아 처음에는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가 마련해준 교회 옆 공터 천막에서 잠시 살다가 노량진에 연립주택을 얻어서 이사를 가게 되었다.

나는 북한에서 보성여고 4학년이 다니던 중 서울로 내려왔기 때문에 학교를 졸업 못하여서 다시 학교에 다니고 싶었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았다. 동생들이 학교에 다녀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학업을 계속 이어서 할 수는 없었던 것이었다.



김현란 박사. 임영신 박사처럼 신 여성운동을 하면서 살고 싶었다

집에서 놀고 있던 날 보고 뭐라도 해야 할 거 아니냐고 친구나 친척 등 여러 사람들이 말을 해서 편물공장에 취직했다. 난 뜨개질을 잘했다. 남편과 사별한 후에는 뜨개질로 먹고살기도 하였다.

난 원래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일찍부터 엄마에게 선포했었다. 대학을 다니는 오빠를 따라서 교회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김활란 박사, 임영신 박사 같은 신세대 여성을 알게 되면서 여성의 권리와 역할에 대해서 눈을 떴기 때문이었다. 그분들은 여자가 남자의 종이 되어 살아서 되겠느냐, 여자도 독립하여 떳떳하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

고, 그 사상에 영향을 받은 나는 남자의 종이 되는 결혼을 반대하게 된 것이다. 그분들의 삶을 본받아 모든 여성들의 어머니의 역할을 하고 싶었다.

어머니는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내 고집 때문에 속이 많이 상해 있었다. 어머니가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계속 우울하게 지내시는 것을 본 나의 마음도 편하지는 않았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내가 시집가는 것을 봐야만 죽더라도 속이 편할 것이다. 이대로는 절대 죽을 수 없다"며 속마음을 토로하는 말씀이 가슴 속에 비수처럼 꽂혔다. 어머니는 사뭇감을 몰색해 놓고는 이 사람이 나에게 맞을까 저 사람이 나에게 맞을까

재고 또 재는 것이었다. 아무리 신학문에 몰두해 있다고 해도 난 부모님의 명령을 거스를 수는 없었다. 어머니는 시집 안 간다는 나를 어르고 달래서 나에게 비위를 잘 맞출 사람을 고르거나 풀렸다.

그래서 공무원인 선우담 씨와 약혼을 한 후 결혼 날짜를 잡아놓았는데 전쟁이 터졌다. 시대는 종갓집으로 시할아버지 할머니를 포함하여 12식구나 되었다. 육이오전쟁이 터지자 시부모님은 남편과 나를 먼저 부산 연산동으로 피난을 시킨 후 나중에 시할아버지 시할머니와 같이 내려오셨다. 남편은 부산 시청 공무원으로 전근하였고, 거기에서 큰 애를 낳았다. 친정 부모님들도 부산으로 피난 오셨는데 전쟁이 끝나자 다시 서울 노량진으로 올라가셨다.

기독교 신앙에 회의가 들었다

남편은 부산 시청 공무원으로 아침에 직장에 나가면 나는 애를 데리고 교회에 나가거나 교회에 관련된 일을 하느라 집안에 있지 않았다.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살면서 신앙생활은 계속되었고 이를 남편도 반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신앙인들의 삶도 성경 말씀이나 목사님이 말씀하신 좋은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사는 것에 대하여 마음 한 구석에 늘 불만족스럽고 성에 차질 않았다. 기독교 교리와 기독교인의 삶에 대해서 많은 모순과 부조리한 것에

회의와 불만이 상당히 컸다.

왜냐하면 목사님 설교 말씀과 성경 말씀은 항상 선하고 의롭게 화평하게 살라고 하는데 실생활은 대부분이 불의하고 이기적이며 외형적 허례허식만 차리는 위선적이고 이율배반적인 삶을 사는 것에 회의와 불만을 느꼈기 때문이다. 아버지와 오빠들의 신앙하는 것도 이면과 체면을 차리고 자기의 유익과 합리화에 매우 집착이 강한 것에 반발하여 충동하고 대립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 대개 다른 기독교 목사들의 신앙도 그러했다.

그러다 우연히 불의 사자 박태선 장로라는 포스터를 보고 부흥회에 가서 박태선 장로님을 만나게 되었다. 당시 박태선 장로는 대신동 간장공장 자리에 부산전도관을 세우고 교세를 확장하기 위하여 열을 올릴 때였다. 나는 애를 업고 박장로님 집회에 빠짐없이 다녔다. 박 장로를 만나니 성경의 말씀이 너무 새롭게 들렸고, 더더군다나 영생을 한다는 것이 너무 좋았다. 나는 거기에 푹 빠지게 되었다. 6.25 전쟁 후 어렵고 힘든 시절에 엄청난 치유의 기적과 놀라운 성령의 은혜로 대한민국 사상 초유의 종교역사를 펼친 박 장로님에게 완전히 매료되었던 것이다. 영생의 역사가 이 땅 위에서 펼쳐진다는 새로운 말씀에 귀가 번쩍 열렸고, 삶의 생동감을 불어넣어 주었으며 새로운 생각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승애 권사/본부제단

요즘 에볼라가 아프리카에서 창궐한 후 미국 등 서방의 여러 나라에서 감염환자가 발생하고 치사율이 높아 전 세계적으로 불안과 공포심이 퍼지고 있다. 최근에 들어 사스, 신종 플루 등 과거에는 없었던 새로운 질병이 일어나며 감염 속도도 교통수단의 발달로 인해 더욱 빠르고 또한 그런 소식이 실시간으로 전 지구적으로 퍼지다 보니 공포심이 더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 앞으로 더 의학이 발달할수록 파괴력이 더욱 센 질병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한다.

수운선생은 12계국 괴질은수, 아동방 3년 괴질 등을 말했고 중산선생도 "이 뒤에 병질이 군창(軍倉)에서 시발하면 전라북도야 어육지경(魚肉之境)이요 광라주(光羅州)에서 발생하면 전라남도야 어육지경이요 인천(仁川)에서 발생하면 온 세계가 어육지경이 되리라. 이 후에 병질이 나뭇 때 군창에서 발생하여 시발처로 부터 이레 동안을 빙빙 돌다가 서북으로 펼쳐 휘면 급하여 이를 데 없으리라. 조선을 49일 동안 슬고 외국으로 건너가서 전 세계를 3년 동안 쓸어버릴 것이니라(도전7:41)" 육도삼락은 행지도의 마지막 주인공이요 81국 금운으로 오신 미륵불께서도 "이제는 절여가다가 그냥 픽픽 쓰러져서 죽는 시대가 온다. 조금 있으면 마귀가 전멸되는 것을 알고 마귀가 한 생명이라도 삼켜 버리고 같이 죽으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죽는다. 실 리에 한 사람 있을까 말까 하는 때가 온다."고 격암유록에 써여 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지 시체가 산더미같이 쌓인다고 그랬다. 격암유록에는 세밀하게 써여 있다. 피가 시커멓게 되면서 응고가 되어 굳어버리거나 심장마비로 뺨아서 죽는다. 그런 시대가 꼭 오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구세주가 나타나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고 하셨다.

격암유록 가사총론에는 "삼재와 팔란이 함께 일어나는 때가 언제인지를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느냐? 삼년간의 흉한 일과 2년간의 괴질이 유행하는 돌린 병이 만국을 휩쓸 때에 토하고 설사하

는 병과 피가 굳어져서 까맣게 타서 죽는 이를 모를 천질로서 아침에 살아있던 사람이 저녁에는 죽으니 열 집에 하나만 살아남는 구나." 이와 같은 무서운 예언을 볼 때 에볼라 같은 것은 예언서의 괴질에 비할 바가 못 되는 것이다. 그럼 이와 같은 괴질의 정체나 그 발생의 원인은 무엇이며 그처럼 무서운 괴질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없을까?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해답이 있기 마련이니 그 괴질을 극복하는 비결을 한번 찾아보기로 하자.

괴질은 마귀가 주는 병

먼저 괴질의 정체, 그 발생 원인을 알아보자. 괴질의 사전적 의미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괴이한 돌림병이다. 병은 곧 병마이니 병은 마귀가 일으키는 것이다. 그럼 이 마귀가 어떻게 인간에게 병을 발생시키는가? 더 근본적으로 인간이란 무엇인가? 현재의 나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안다면 자연히 그 답이 나올 것이다. "육신이 입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나니라(성경 야고보서 1장 15절)" 사망은 죄 때문이요 죄는 육심 때문이요 육심은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나라는 의식 즉 나라는 주체영이 육심을 부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라는 주체영이 육심을 부리고 죄가 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는 것인 즉 나라는 주체영이 원죄요 선악과요 바로 마귀가 되는 것이다.

실제로 나라는 의식이 육심부리면 피가 썩어 깨끗한 피가 부숙하게 되므로 새로운 세포가 조성되지 못하여 노화현상이 일어나고 그 썩은 핏속에서 병균이 발생하여 결국 생명이 죽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참나(진아)"를 찾아라"라는 말을 한다. 이는 '현재의 나'는

괴질(병겁) 극복의 비결

"무도대병(無道大病) 걸린 자들 불사해인(不死海印) 나왔다네(격암유록-가사총론)" 불로초, 불사약으로 알려진 감로해인으로 괴질을 일으키는 마귀를 멸해버린다



괴질(병겁)은 오직 해인으로만 해결된다. 사진 우측의 하얀 부분이 감로해인이다

'참나'가 아니고 '거짓 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단군세기 서에 진아(眞我)는 일신유거지궁(一神攸居之宮)(거짓나는 하나님의 신이 거하는 집)이라 했으니 현재의 나 즉 가(假我)는 마신유거지궁(魔神攸居之宮)(거짓나는 현재의 나는 마신이 거하는 집)이라는 뜻이 그 속에 이미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참나(진아)를 찾게 되면 하나님을 모셨다가 되고 하나님이 좌정하셨다가 되는 것이며 현재는 마귀가 나의 의식으로서 내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된다.

결국 현재의 인간은 마귀의 신이 내가 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신은 마귀의 포로가 되어 힘이 약한 양심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경전마다 "나(마귀)를 버려라. 불심을 풀어라.(마귀의 마음을 풀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라. 성령(하나님)으로 거듭나라"라고 하는 것이다. 전에는 하나님

이 내가 되어 존재하고 있었으나 마귀에게 패하여 천신부지귀승(天神負而地鬼勝/격암유록) 현재의 인간으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나라는 주체 의식이 바로 마귀이기 때문에 그 마귀가 온갖 육심을 부림으로 말미암아 병이 일어나는 것이다. 오늘날 인간은 무도불의가 이미 짐승 수준이라는 의미에서 가히 털 없는 짐승으로까지 불리워질 만한 형편이다.

"대병(大病)도 출어무도(出於無道)하고 소병(小病)도 출어무도(出於無道)하니 득기유도(得其有道)면 즉 대병(大病)도 몰약자효(勿藥自效)하고 소병(小病)도 몰약자효(勿藥自效)니라(도전 5:347)" (대병도 무도에서 나오고 소병도 무도에서 나오나니, 도를 얻으면 대병도 약 없이 스스로 낫고 소병도 약 없이 스스로 낫느니라).

대병의 끝은 괴질이요 이는 다 무도에서 나오는 것이니 현재의 인간이 가

히 털 없는 짐승이라 할 정도로 그 무도가 극치에 가깝다 할지니 머지않아 괴질이 발생하리라는 것은 불분가지요 중산선생은 괴질이 한국에서 먼저 발생한다고 하였다. 그 구원의 방법이 관박에 있다고 하였으니(도전7:39) 관 안의 종교, 학문등 기사묘법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다는 뜻이다. 이 세상의 종교나 학문은 모두 죽어서 천당, 극락을 가는 말뿐이요 괴질을 극복하고 살아서 천당 극락을 가는 길을 모르는 것이다.

천지도수로 불 때 육도삼락의 제4도를 담당하신 중산선생이 감로해인을 직접 가지고 올 수는 없기 때문에 '후일에 추수할 두 사람이 나온다.'고 하였으며 마지막에 오시는 분을 대두목으로 표현했던 것이다. 바로 그 분은 '이 세상에는 종교도 없었다. 학문도 없었다.'고 이미 말씀하셨으니 곧 구원의 방법이 관 안에 없고 관 밖에 있음을 드러내심이다.

감로해인은 무극대도에서 나온다

"무도대병(無道大病) 걸린 자들 불사해인(不死海印) 나왔다네(격암유록-가사총론)"라 하였으니 무도대병 괴질에는 해인이 구원의 방법이 되는 것이요 즉 불로초, 불사약으로 알려진 감로해인으로 괴질을 일으키는 마귀를 멸해버린다는 말이다. 괴질이 창궐하기 전에 미리 감로해인을 많이 받아먹어 괴질이 범할 수 없는 몸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모든 일은 그 때와 기회가 있는 것이니 지금이야말로 감로해인을 받아 나 자신이 새롭게 변화를 할 때인 것이다. 그 때를 놓치면 머지않아 감로해인을 받아먹고 싶어도 안 되는 상황이 오는 것이다.

해인(이슬성신)은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권을 이기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신인 고로 기도할 때는 마귀를 이기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마귀를 멸할 수 있는 것이지 임만

달씩거리고 그냥 큰 소리만 낸다고 마귀가 죽는 것이 아니다. 감로해인은 무극대도에서 나오나니 무극대도를 완성한 분만 찾으면 감로해인을 얻을 수 있을 것이요 무극대도를 완성하신 분이 곧 구세주·메시아·미륵불·정도령이신 것이다. 중산선생은 그 분을 대두목이라고 말했다. 대두목은 두목 중의 두목이요 두목은 못 사람의 우두머리란 뜻이요 오늘날의 왕과 같은 의미이니 두목은 왕과 개념이 같은데서 나온 말인 것이다. 따라서 두목 중의 두목은 왕중의 왕이란 말이요 왕 중의 왕은 구세주란 의미가 되는 것이다.

천지도수로 불 때 육도삼락의 제4도를 담당하신 중산선생이 감로해인을 직접 가지고 올 수는 없기 때문에 '후일에 추수할 두 사람이 나온다.'고 하였으며 마지막에 오시는 분을 대두목으로 표현했던 것이다. 바로 그 분은 '이 세상에는 종교도 없었다. 학문도 없었다.'고 이미 말씀하셨으니 곧 구원의 방법이 관 안에 없고 관 밖에 있음을 드러내심이다.

약 4000년 전 노아시대에는 마귀가 대홍수로 인류를 전멸시키려 하였고 간신히 노아 식구들이 살아나 인류가 생명을 이어 왔으나 이제는 구세주·정도령에 의해 마귀대장은 죽었으나 나머지 무량대수의 마귀가 구세주·미륵불·정도령에 의해 곧 멸망당할 것을 알고 마지막으로 인류를 전멸시키려고 하니 이것이 소위 괴질인 것이다. 감로해인으로 괴질이라는 죽음의 강을 건너고 또한 탈경증생을 해야 비로소 영원한 생명을 얻어 기쁨과 쾌락 속에서 살 수 있을 것이다. 도를 구하는 자, 진리를 찾는 자는 반드시 괴질이라는 병마를 박멸 소탕하는 감로·이슬성신을 깊이 알아보시고 구원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권하는 바이다.*박명하 / 본부제단 myunghpark23@naver.com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승리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 - 02 - 134421 예금주 : 이승우